



광복70주년 8·15 국가기도회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평화통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한국교회 8개 연합기관) 참여

설교

조용목 목사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대표회장

사회

양정섭 목사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

축도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이사장

대표기도

이병성 목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특별기도

임종달 목사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축사

최희범 목사
CTS기독교TV상임고문

성경봉독

김국경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이사장

특별기도

이강익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성령회장

축사

이석현 의원
국회부의장

축사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

축사

이철운 시장
안양시

특별기도

박형철 목사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광고

김권현 목사
(사)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총재

결의문 낭독

박종호 목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성령회장

만세삼창

강희준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사무총장

특별기도

고종권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세계선교회 회장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한국교회 8개 연합기관 참여, 대화장 조용목 목사) 주최 광복70주년 기념 8.15 국가기도회(지난 12일(수) 오전 10시 30분 1만여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에서 열려 일제의 침략과 6.25 전쟁으로 파멸해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발전을 누리게 되었고 선교대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안양에서 순서가 진행되었지만 전국 40여 개 성전에 동시방영으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양정섭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회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병성 목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김국경 목사(한국교회부흥운동협의회 이사장)의 성경봉독, 성가대의 찬양,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요 8:32-36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일제치하에서 온갖 수모와 압박을 당하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적인 해방을 맞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 없다"고 선포했다.

이어 "미국의 원자탄폭격에 의해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이로써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북한에 사랑의 원자탄, 복음을 투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랑의 원자탄이 북한에 투하되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음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북한 동포를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이 사랑의 원자탄의 힘으로 멸망하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음"을 역설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국회부의장 이석현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철운 안양시장, 최희범 목사(CTS기독교TV 상임고문)가 축사를 전했으며 박형철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와 이강익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성령회장), 고종권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세계선교회 회장), 임종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비진리 반대를 위해 특별기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도회를 갖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통해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조금 늦게 기도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도회를 주관한 관계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도정을 잘 살려서 잘사는 대한민국, 올바르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지속적인 기도와 성령"을 당부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아직도 같은 조상을 둔 같은 민족인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늘 기도가 새로 온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므로 인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 남북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호 목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상임회장)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갈 조국이며, 한반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의 말씀으로 조국과 영토를 보전하고 아담담게 가꾸어 나갈 것과 오직 성경대로의 복음전파와 WCC처럼 이종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과 조직체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결의했다.

또 우리 조상들의 자유, 평등, 정의, 인도주의 등을 바탕으로 한 3.1 독립운동 정신과 8.15 광복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분단된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날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할 것 △부정부패, 저출산, 이혼 및 자살률의 증가, 국제적으로 만연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합법화, 물질만능주의, 도덕과 문화의 퇴폐 등을 방지하는 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밝고 정의롭고 희망찬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국회의 복음을 헌신하게 하고 변질시키

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일치주의, 비성경적 관용주의를 배격하고 기독교를 표방한 각종 이단사이비를 경계하며 배격할 것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할 것 △중북반국가체제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과 조직들의 활동이 종식되고 그들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는데 힘을 결의했다.

이어 강희준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총장)가 참석자들의 만세삼창을 이끌었고, 김권현 목사(세

계기독교교회협의회 총재)의 광고, 이광용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이사장)의 축도로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는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 (사)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한국교회부흥운동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등 8개 연합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소속된 15개 교단이 함께하고 있다.



‘광복 70주년 8.15기념예배 및 세미나’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성경본질회복운동 전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이하 한기보협)가 14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광복 제 70주년 8·15 기념예배 및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사회, 손현근 목사의 대표기도, 박종열 목사의 성경 봉독, 남상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남 목사는 삼상 18:1~5 말씀을 본론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방되도,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주님의 마 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삽자기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기보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것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 △교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용납 하지 말 것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할 것 △종



북 반역 세력을 축출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이룰 것 등을 촉구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성경본질회복 (고후 3:6)이라는 주제로 지암철 목사가 “기독교는 역사적 보수만을 유일한 보수라고 자칭하며 가르쳐 왔고 외쳐 왔다”며 “그러나 이 역사적 보수를 주장하고 지향해 왔던 서구 기독교는 오늘날 폐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기보협은 성경본질회복운동을 각 교단장들과 함께 앞장 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이삼원 목사의 사회, 김진 목사 (예장 합동제일 총무)가 성경봉독과 기도, 이범성 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국가 안정과 통일 한기보협 회원들의 발전, 한국교회, 동성애 저지 등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이어 안경조·신오성·사금열 목사의 특별기도, 김준희 목사의 헌금기도,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결의문 낭독과 광고, 남성운 증경 대표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원로목회자들 ‘복음통일, 평화통일’ 기도

원로목회자후원회, 신앙유적지인 철원감리교회 방문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는 지난 11일 원로목사 20여 명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제일교회(담임 이상옥 목사)를 방문했다.

예배로 방문일정을 시작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는 김진옥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상임회장의 사회로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 총재)의 설교, 최병두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이상형

사관(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특별기도, 이상도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명예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은수 감독은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제 통치와 6·25전쟁을 겪은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이상옥 목사(철원제일감리교회 담임)의 유적지 설명 이상옥 목사에게 감사장 전달, 유적지 현장에서기도회 등이 이어졌다.

원로 목회자들은 기도회에서 “복음통일” “남북통일” “평화통일”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간구하는 통성기도를 드렸다. 무너진 교회 벽에 손을 얹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노 목사들의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다. 또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민족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며, 한국교회 연합과 교회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이해 방문한 철원제일교회는 2002년 근대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무너진 교회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이곳이 3·1운동의 역사성을 지니고 6·25전쟁 당시 기독교 청년들의 반공투쟁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성애자의 영혼 구원 위해 기도

기지협, ‘광복70주년 기념예배 및 한반도 평화 위한 특별기도회’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11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예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드리고,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공동회장 김동원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인사말, 도봉감리교회 여성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공동회장 김재송 목사가 ‘예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본은 지금도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치 않고 있다”며 “우리는 광복 70년을 맞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기도는 고문 염시동 목사가



“독도수호와 일본 침탈을 막기 위하여”, 김희신 목사(씨어선 총회장)가 “북한의 핵포기와 도발방지를 위하여”, 공동부회장 김병운 목사가 “정치권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공동부회장 김유순 목사가 “동성애자의 회개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를 주제로 각각 기도했다.

이날 기지협은 광복 70주년 메시지를 통해 △남북이 하루속히 대립을 끝내고,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만들 것 △아베 정권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시인하고, 사과와 함께 진정이 담긴 대화를 통해 동반자의 관계를 개선할 것 △동성애 동성혼 절대 불가 등을 천명했다.

한교연 ‘종교 목적을 법이 판단할 수 없다’

종교활동 제한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 취소되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이 판결이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법원은 용두동감리교회가 예능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종교와 관련이 없어 시설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할구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교연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가 교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 함양과 지역사회 전도 목적이 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 같은 명백한 종교행위를 종교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는 법적 제재나 판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적 특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회법은 교회 분쟁의 경우에 판결이 아닌 상호 조정 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면서 “어떻게 종교행위를 법의 잣대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울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이다.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법이 합부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예배는 종교 행위이고 친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은 앞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기에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0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등 3개 단체 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와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3개 단체가 연합, 8.15 광복절 70주년 연합예배가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여전도회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종교관 목사(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상임부총재)의 사회로 김권현 목사(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총재)가 기도, 이봉희 목사(예장합동연합회 2총회)의 시편 126:1-6절 성경봉독, 개혁신교단단의 찬양, 김병섭 목사(예장통합총회)의 색소폰연주에 이어, 양정섭 목사(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이사장)가 ‘축복의 광복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양정섭 목사는 설교에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며,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를 이어 가고자 하고 있으며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으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성경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집승과 같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이어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



며 다시는 다른 나라에 종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기독교는 정신을 차려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WCC와 동성애를 반대하고 보수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함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며, “우리 기독교가 애국자가 되어야 하며 복음을 위해서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최옥석 목사(사.세계개혁신

교회연합회 대표회장)가, 대통령과 온 국민을 위하여’ 신영미 목사(예장합동부흥총회 총무)가,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하여’ 임정태 목사(예장통합총회 상임총무)가, ‘일본회개 촉구와 우리나라 독도지킴이 위하여’ 정현 목사(예장합동연합총회 총무)가 기도한 후, 강희준 목사(예장개혁총회 총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만세삼창 후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8회 이단 통일교 척결을 위한 특별기도회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한마음으로 기도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28회 이단 통일교 척결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지난 10일(월) 오후 2시 기독교회관 10층 1002호 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단 제벌과 통일교 척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강봉규 목사(예하성 경기북지방회 중경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강창원 장로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박한나 선교사, 장기남 장로의 특송, 전석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전 목사는 마 16:21-28 말씀을 본론으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우리를 모두에게 각각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가는 사명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강봉규 목사(예하성 경기북지방회 중경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강창원 장로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박한나 선교사, 장기남 장로의 특송, 전석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부했다. 이규종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이단제벌과 통일교 척결을 위해’, ‘통일교 탈퇴자 신변보호와 동대협을 위해’ 신송식

목사, 박영일 목사, 임하영 목사, 이태근 목사, 정부자 권사가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의 광고, 전광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가난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세상으로!’

23일 서울광장에서 2015 라이즈업코리아 823대회 개최



2015 라이즈업코리아 823대회(대회장 김은호 목사)가 오는 23일 주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7만여명의 마음으로, 무너지는 세상으로!를 주제로 개최된다.

오후로 12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가 주관, CTS기독교TV가 공동주최하며, 청소년과 청년세대 및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되며 게스트로 가수 가을, 라이즈업 밴드 등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의 1부는 지역 예선을 거친 전

국 중등등학교 동아리 및 교회 중등부 20여 개 팀이 함께하는 경연대회인 ‘라이즈업 청소년 페스티벌’로, 이어 본 행사인 2부 라이즈업코리아대회는 개회선언, 찬양 및 예배, 메시지 선포, 기도회, 비전선보,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라이즈업무브먼트는 이번 대회를 위해 5월 29일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매일 새벽기도회를 갖고 준비했으며, 또 수도권 1만여 교회를 방문 홍보했다.

라이즈업코리아대회는 2004년 9월 11일 잠실주경기장에서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회 대회부터 7회 대회까지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8회 대회는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이후 11회 대회까지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매년 개최됐다.

‘추앙 목회힐링캠프’ 9월 8일 추앙하우스에서

평화통일기도회, 특강,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준비

추앙재단(이사장 강병훈 목사) 운영위원회는 오는 9월 8일(화)부터 9월 10일(목)까지 속초시 설악동의 추앙하우스에서 ‘2015 추앙 목회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015 추앙 목회힐링캠프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회예배 후 진재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범일 교장, 박완철 목사, 최선길 목사, 김영길 초대총장(한동대학교)의 특강과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의 폐회예배 및 축도로 진행된다.

특히 둘째날 저녁 9월 9일(수) 오후 7시에 는 참석 목회자뿐 아니라 속초 인근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국적,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자성하며 통회하는 평화통일기도회와 소나무숲 힐링콘서트다 이어진다.

2박 3일 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인 설악산 자락에서 자연을 느끼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200여 목회자들의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히 홍정길 원로목사, 강병훈 목사도 함께 신책하며 환경지 목사의 기도처를 돌아

보고 동해안 바닷가에서 목상기도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추앙재단은 故 한경직 목사가 추구하였던 ‘평화통일, 한국교회의 하나됨, 민족의 복음화’ 방안에 대해 기독교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초교파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추앙하우스와 환경직목사기념관 및 평화통일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등록 마감 시한은 9월 1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02)8442-5474로 문의하면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 美AG 한국총회 성령캠프 참가 점검

6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의장 총회장 진동용 목사 축도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 개회기도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 사회 총무 김병목 목사 대표기도 인천시총회장 김영학 목사



교단임원진

교단 64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7일(월) 오후 1시 총회회관에서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인천시총회

방회장 김영학 목사의 기도,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7:24-27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양육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지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모레 위에집을 짓

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것을 당부하고 실행위원들을 축복했다.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의장인 총회장진동용 목사 주재로 증경총회장 김인규 목사의 개회기도로 회의에 들어갔다. 회원점명, 개회선언 후 보

고사항으로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첫 보고사항으로 교단 64차 총회장 진동용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러졌음과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월례회, 64차 총회 제1회 정책위원회의, 교단 신학 지방신학교 명칭변경 재판위원회 모인, 2015년도 상반기 총회 목대원 계절학기, 2015년도 중고등부 비

전캠프, 일산지방회 처리, 헌법시행규칙 개정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각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부현황을 보고하고 재무, 회계보고 후 결의 및 안건 토의사항으로 교회가인 청원, 교역자가인 청원, 교역자복지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

경, 교회명칭변경, 교역자후지 청원, 지방회 실행위원 변경인준건이 통과되었다.

기타사항으로 64차 총회장 취임예배, 2015 중고등부 청소년비전캠프, 전국신학생 개강연합수련회, 미국 하나님의교회 한국총회 성령캠프 참석 건, 여교역자국 연합수련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되었다.

2015 개강연합수련회, 여교역자국 수련회 점검

64차 총회 제4회 임원회

교단 64차 총회 제4회 임원회가 지난 11일 (화) 오전 11시 공주시 순복음추계교회(담임 조원익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이인규 목사의 기도,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설교에서 무더위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단과 교회에 위해 헌신해 온 임원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축복했다.

진동용 목사의 축도 후 총회장 진동용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총무 보고로 이어졌다.



총무 김병목 목사는 교단임무보고와 사항으로 2015중고등부 비전캠프, 재판위원회 모인, 탄원서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계속해서 재무 김중연 목사의 회계보고사항으로 지방회별 교단발전기금 납입현황 및 수입보고 회계 김영준 목사의 지출보고 후 결의 및 안건의 사항으로 교회가인 청원, 교역자복지 청원, 교역자복지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후지 청원, 여교역자국 연합수련회 참석 건, 여교역자국 연합수련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되었다.

월례회, 원칙과 본질 지키는 목회사역 다짐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임영광 목사)는 지난 10 일(월) 오전 11시 선한이웃교회(담임 은금홍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전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8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광호 목사(동문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성경봉독(행6:1-8)에 이어 증경회장 임용재 목사(순복음산정리교회)가 설교했다.

임용재 목사는 “교역자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면서 “교회의 부흥은 원칙과 본질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며 목회자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에서도 원칙과 본질을 지켜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회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며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회원 교회와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합심 통성기도, 회계 김배울 목사(순복음진라교회)의 헌금기도, 총무 최은규 목사(순복음선한목자교회)의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임용재 목사(순복음산정리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는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임영광 목사(주성교회)의 기도 후 서기 김병호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회원점명으로 시작하여 각부보고를 받고 회무를 처리했으며, 지방회장 임영광 목사(연천순복음교회)의 폐회기도로 모든 회의를 마무리했다.

3부 교제시간에는 선한이웃교회에서 준비한 여름 보양식으로 식사를 하며 회원 간에 교제를 나누고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쳤다.

8월 월례회, 목회에도 심이 중요한 부분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최철민 목사)는 지난 6일(목) 오전 11시 보리울순복음교회(이봉기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복길 목사(안남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의소리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마 6:30-34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이 있는 목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육간에 충분한 안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축복했다. 이어 회계 신근철 목사



(순복음예수생명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송전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최철민 목사(순복음초대교회)의 진행으로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후 보리울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후회와 아픔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선유생명교회 설립예배, 생명의 복음 전파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진호 목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파주 문산읍 독서울 1길 40에 소재한 선유생명교회(담임 박행남 목사)의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성선호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오세준 목사의 성경봉독, 노회찬 장로의 이코디온 연주에 이어 지방회장 김진호 목사의 설교와 선유생명교회 설립 선포가 이어졌다.

이어 재무 지용득 목사의 헌금기도, 회계 박태균 목사의 헌금송 증경회장 양요한 목사



와 증경회장 신용호 목사(파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축사, 박행남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지방회장 김진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

쳤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전진회관에서 선유생명교회에서 마련한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월례회 및 수련회, 훈련과 연단 통해 하나님께로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0일~11일 1박2일간 평택에 위치한 엘리아수원관에서 월례회와 여름수련회 및 단합행사를 갖고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신동숙 목사의 사회로 김남순 목사의 기도, 김효신 목사의 벤전 2:1-10 성경봉독에 이어 정미자 목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모족(대나무)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잎만 뻗어서 나오고 5년 동안 지리지 않는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쭉쭉 자라는데 하루에 20센티미터 정도로 자라기도 한다. 5년 동안 흙속에서 마디를 형성하고



성정할 준비를 했던 것처럼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신앙이 형성되고 성장한다”며 “예수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정룡 목사의 헌금기도, 나라와 교단, 회원교회를 위한 합심기도에 이어 2부 회무에 들어가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했다. 3부에는 성경퀴즈 대회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5 하기수련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회복

서울강남지방회

서울강남지방회(회장 김종열 목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5 하기수련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회복”이란 주제로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세계로교회에서 가졌다.

이날 개회예배에서는 정윤기 목사(순복음가리교회)가 설교했으며, 이어진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종열 목사(참사랑교회)의 사회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날 오후에는 족구를 통해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시간에는 이범희 목사(연호신학교)의 클리닉 연수와 참사랑교회의 찬양팀들이 인도하는 찬양을 통해 한 김동과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믿음과 성령충만으로 믿음의 회복이 이뤄졌다.



회원들은 찬양과 기도로 함께 드려진 1시간 30여 분간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 아쉬워했다.

둘째날 오전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함께 웃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시간은 수련회 주제인 쉼과 안식에 대해 지방회장 김종열 목사(참사랑교회)를 강사로 한 세미나가 열려 성경적인 안식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다시금 참된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셋째날은 오전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성현 목사(은혜로교회)의 설교로 폐회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로 돌아갔다.

회원들의 큰 반향을 일으킨 이번 수련회는 쉼이라는 의미 그대로 충분한 쉼을 제대로 가져본 시간이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 생명의 말씀 ■



김 남 수 목사

· 경기동남지방회 회장
· 밝은빛교회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2-3절)

그러나 그 재판관은 처음 얼마 동안은 외면하며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하고 들어 주었습니다.(4-5절)

예수님은 갓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얼굴을 땅

에 대시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마26:39)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였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영혼의 호흡이요, 축복의 통로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희망과 찬양과 미소로 바꾸게 합니다.

약 5:13-15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자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와 응답

(눅 18:1-8)

전 7:14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차마 밭으로 피하는 것처럼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날에 아래로 피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병 들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응답과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렘 29:13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였고, 렘 33:3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해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을 찢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만날 수 있고 각종 문제해결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시145:18) 우리가 금홀하심

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신실한지 나타내주는 척도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살전 5:17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기도요, 찬송하는 것도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2002년 영국 BBC방송이 영국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은 품행이 나쁘고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였으나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시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꿀벌은 꿀 한 손가락을 만들기 위해 꽃과 벌집 사이를 4천 2백번이나 왕복한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듯이 우리는 자연의 마물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낙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간성으로 하는 기도인지, 간절할 기도인지 분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인지 혹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분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부적/일반적인 차별 조항을 포함한 때문이며, 차별금지외의 대표적 조항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3.8%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군형법상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 처벌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 부대 내의 동성애 확산은 명약관화하고, 에이즈 환자의 급증 등이 우려된다. 더욱이 군대 내의 위계질서와 군 기강이 무너지고 군 전력 약화로, 국가 안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이 후보자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국가보안법’ 문제에 있어, ‘남용/오용 여지 조항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는 국가 이적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서는, ‘병역과 개인적 양심’이 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졌다.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군복무를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며,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국토방위는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이성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우리 사회는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혼란과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물론, “차별금지법”이라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악법 제정이 가속화 되어, 신앙과 양심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부적 인권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 보다, 국제적 분위기와 특정 성적소수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옹호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처리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진의와 문제점을 정확히 따져,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동 정

나사렛대, ‘자살예방 프로그램’



나사렛대(총장 신민규) ‘TLC 아카데미-생명사랑’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로부터 ‘2015년도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나사렛대에 따르면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를 대학으로는 나사렛대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령의 바람을 세계에



제10회 사마리아 선교회(회장 박용학 목사) 여름연합성회가 8월3-5일까지 인천 구월교회에서 열렸다. 박 목사는 “사마리아선교회는 순수 선교만을 위한 비정치 단체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열심있는 회원들 덕분에 지금껏 맥을 잇고 있다”며 공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CTSI, 여성성경학교 지원



행복한 섬김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CTS인터내셔널(이사장 감경철)은 초원교회에서 지리산선교동지회 소속 미자립교회에 성경통독캠프 개최를 지원했다. CTS의 작은교회 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자체적으로 여성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올해로 3년째 이어가고 있다.

교경협 목회자수련회



교경협(대표회장 이건영 목사) 제20차 목회자 수련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사85:6)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20주년을 기념해 미지립교회 목회자불 100가정을 무료초청한 가운데 교회예배를 시작으로 정기총회, 20주년 감사잔치, 문화공연, 주제특강, 기념포럼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6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류접수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1) 목사고시 청원서 : 총회 홈페이지(www.aogk.org) → 자료실 → 서식 다운로드 → 교단서식 → 15호 목사고시청원서 다운

(2) 구비서류 : 목사고시 청원서 참조

* 2부 작성하여 1부는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 1부는 지방회에 보관.

2. 서류접수처 : 150-15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총회본부

3. 서류심사 : 2015년 9월 3일(목) 오전11시

4. 오리엔테이션 : 2015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5. 성경고시

(1) 논문 대신 성경고시 실시.

(2) 성경고시는 성경암송과 문제풀이로 함.

6. 목사고시 : 2016년 2월 22일(월) ~ 23일(화), 오전 10시 총회본부

7. 목사고시료 : 50만원

(1) 납부일 : 2015년 8월 28일(금)까지

(2) 입금계좌번호 : 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8. 목사고시 응시자격 :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목사고시 과목

(1) 구약학 (2) 신약학 (3) 조직신학 (4) 교회사 (5) 교회 행정학 (6) 목회 윤리학 (7) 헌법 (8) 기독교교육 (9) 교회성장학 (10) 면접 (11) 설교 실기(5분)

* 설교는 2부 작성(심사용1부, 설교자용1부) 목사고시 당일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진동웅
총 무 목사 김병욱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목양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만용(蠻勇)으로 비쳐지지 않게 하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사상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설교할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 정의, 공의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출처:가장 위대한 메시지)

2012년에 개봉된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는 ‘대한민국에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범죄주의는 아홉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다 해도 단 사람의 인권이라도 손상되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요! 그러나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하지만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국민적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의 권위가 우선인가? 인간의 존엄성 곧 인권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답은 단 한가지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법권의 권위가 다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그 누구도 재판권은 보장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기에 법 집행은 당연히 공의롭게 실현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법권이 국민을 향한 민애(民愛), 공평(公平), 정의(正義), 진실(眞實) 등이 가려지는 일이 단 한 사건이라도 발생되고 있다는 염려를 안겨주는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열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회적 문제의 고みに 앞서 도리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어느 단체나 교회 등은 권력화, 집단화 되었고, 나아가 귀족주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들의 권위적 전횡에 의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진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인들이 하는 소리는 원래 그런 것이야!”라는 논조로 묵살해 버리고 회개나 뉘우침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성의 목소리까지도 묵살해버리는 작금의 우려스러운 현실에 ‘부러진 화살’의 아우성들로 가득 채

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한국교회에 공평, 정직이 존재 하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으로는 양 아흔 아홉 마리로 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도, 삶은 전혀 다른 길로 달려가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음해, 사관, 주님의 일을 내세워 외부로부터 오는 질책 등은 물론 내부의 충언도 묵살해 버리는 암담한 처사들, 모두가 머리가 되기 위하여 꼬리를 잘라버릴 수 있다는 만용(蠻勇)을 부리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는 않은가?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삼신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제 9:20-21)



온선칼럼

문찬우 목사 // 청담온선교회 담임, Canada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B. A), 호서대 신학박사 (Th. D)

파라오의 마지막 선택

(출 11:1-10)



2012년, 여름이 되기 전에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2주간 거친 도시는 세 곳,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약 6년 전 방문 시에 느낀 바대로 독일은 역시 깨끗하고 단단한 나라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가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독일인들은 정화하고 합리적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시아에도 독일과 비슷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개화기에 독일의 헌법으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경제 등의 많은 분야를 벤치마킹한 일본인들도 시민의식이 대단합니다. 1991년도부터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이 지닌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

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점은 것처럼 친절하고 깨끗한 두 나라가 역사상 최악의 전범국가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대살장과 일본의 난징대살장 인간 생체실험,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건들은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하기조차 힘들만큼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독일과 일본이 보여주는 최고의 시민의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전체주의(totalitarianism) 혹은 국가지상주의(statism)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의 의식 있는 행동들이 개인적 양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국가권력에 대한 맹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전체적 흐름에 따라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언젠가 읽었던 변정수씨의 책 <만정일지는 무효>의 내용처럼 획일적인 사고나 행동은 인간 본성에 대한 거만이며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다행히도 전범국가 독일은 2차 대전 패전이후 꾸준히 반성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중심에 있는 광활한 땅 위에 유대인학살기념관을 세우고, 부단히 나치의 전범들을 공개 수배하는 등의 행동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니다. 소리는 정지합니다. 단순히 누가 ‘좋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판단한 소리만큼 정지하고 정확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홍보매체를 통해 자주 광고하는 시공회사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100퍼센트의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시공회사들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어떤 제품에 대해 그것이 아니면 ‘만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각각의 제품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결려에 따라 그리고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좋은 평가가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전범국가인 일본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필두로, “침략은 아시아 보호차원이었고, 위안부는 자신들의 자의로 선택한 직업이었다.”는 등의 한심한 말들만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핏대를 세우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르짖는 요즘 성서의 출애굽(exodus)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자유헌행사를 저지하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열 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니 굴복하라!” 그러나 바로는 그 엄중한 소리를 무시합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이집트는 점차 초토화되고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長子)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파라오는 히브리 노예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반성도 잠시, 이집트군대는 다시 노예들을 추적합니다. 종국적으로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며 참극은 끝나게 됩니다.

최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파괴로 인한 일본 국토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여러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정도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약 7배나 되는 수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이 당장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생산력에 있어서 일본만큼 탄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쓰나미가 약자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천재(天災)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과 2011년의 쓰나미는 막 시작된 두 가지의 재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파리 때, 전염병, 독종, 우박과 불덩이, 때무기 때, 흑암, 그리고 정자를 치는 나머지 여덟 가지 재앙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난이 아닌 호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その程度なら 十分ではないですか?”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목양/우리교회 음향은?

문형만 장로 // 전 삼지대 원주대 강사, 전 MBC, KBS 프로그래머 겸 리포터, 현 대림음향 사외이사, 크레딧 사운드 이사, 현 낙원선교센터 담당자



좋은 업자와 좋은 소비자

“교회 음향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업체에 맡겨야 하는지 참 고민스럽네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사기꾼 같고, 이 업체는 어떻게 저 업체는 저렇게 말도 많으니 누구 믿어야 하는지... , 어디 좋은 업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전에는 수 백만원씩 하던 고가의 음향측정기가 요즘은 스마트 폰을 이용해 음향측정을 할 수 있는 저가용 또는 무료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약간의 지식만으로도 나름대로 괜찮은 음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측정기와 음향전문가라도, 시공된 시스템에서 재현되는 소리를 100퍼센트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든 시공을 위해 장비를 선정하고 시공회사를 선택할 때, 이것저것 많이 따져 보리라 생각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하고자 하는 스피커의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본사나 취급점을 방문해 직접 들어

보기도하고, 꼼꼼한 분들은 원하는 제품이 시공된 다른 교회를 찾아가 소리를 들어보면서 연구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시공된 그 공간에서는 훌륭한 소리를 보여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를 재현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보여준 특정한 사운드를 가지고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같은 소리를 들려주리라는 확신은 금물입니다.

가끔 시공회사와 교회 사이에 음색의 차이를 두고 계약위반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소리와 음색이 다르다고 해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직상의 제품을 충실히 설비한 것으로 시공사의 일차적인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게 됩니다. 물론,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결국 자체가 설정될 때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의 성능을 과대포장 했다고 하면 그러한 근거를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시설된 제품의 음색의 차이를 두고 심한 경우 시설이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 반품과 재시공을 요구하는 종종 봅니다.

그러한 계약서를 무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정작 우호적이고 서로 도와야 하는 시공회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오히려 무책임한 자와 속아려는 자의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가는 근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회는 제품과 시공방법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할 예측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를 검토하고 시공사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공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 아닌 이상 받아들이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후 교회에서 좀 더 나은 소리를 듣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비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모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20,000원(택배비 2,000원 별도)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수가 잘 빠진 2013~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

주제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

- 여목회자 리더십 훈련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여교역자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 안에서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리더십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를 주제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교역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 | 일 시 | 2015년 8월 24일(월) ~ 25일(화) 1박 2일
| 장 소 | 은혜와진리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 대 상 | 총회 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원
| 등록비 | 1인당 10,000원(계좌 : 농협 356-1047-1351-03 탁정신)
| 접 수 | 2015. 8. 24(월) 10:00 ~ 10:50(예배 10분 전까지)
| 시 상 | 찬송경연대회, 5분 설교대회, 수련회M.V.P.
지부별(지방회별) 최다 출석상
| 문 의 |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H.P. 010-5313-3379)
여교역자국 차장 김선경 목사(H.P. 010-8000-5841)

- 각 지부장은 숙식준비관계로 각 지부별(지방회별) 참석인원을 2015. 8. 10.(월)까지
여교역자국 차장 김선경 목사(010-8000-5841)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 참가자는 2015년 8월 10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표

♡ 첫째 날(8월 24일 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0:00~10:50	등 록	
11:00~11:3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전원감리교회)
11:30~12:20	개 회 예 배	사 회 : 김선경 목사 기 도 : 탁정신 목사 특 송 : 김진성 목사(동양장로교회, 바리톤성악가) 설 교 : 진동용 목사(종회장) 한금기도 : 이경자 목사 오리엔테이션 : 김선경 목사
12:30~14:00	점 심 식 사	
14:00~14:3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4:30~15:30	특 강 1	제 목 : '리더십' 사 회 : 탁정신 목사 기 도 : 김바울 목사 특 송 : 김진성 목사 강 사 : 조용목 목사(정책위원장) (강의 마치고 단체사진 촬영)
15:30~17:00	레 크 레 이 션	강 사 : 조성훈 전도사(전문강사)
17:00~18:30	저 녍 식 사	
18:30~19:0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9:00~20:00	지부별 찬송경연대회	진 행 : 김선경 목사
20:00~20:30	간 식	
20:30~22:00	성 령 대 망 회	사 회 : 김바울 목사 기 도 : 최영희 목사 특 송 : 이화숙 목사(전주지부, 순복음우리교회) 강 사 : 탁정신 목사

♡ 둘째 날(8월 25일 화요일)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06:00~06:30	아 침 기 도 회	기 도 : 한순남 목사 설교 : 김선경 목사
07:00~08:00	아 침 식 사	
08:00~08:3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08:30~10:30	특 강 2	제 목 : '이슬람 바로 알자' 사 회 : 김선경 목사 기 도 : 김효신 목사 특 송 : 박경숙, 서영희, 최갑식, 한원희, 이화숙 목사 강 사 : 김하나 선교사
10:30~12:30	5분 설교대회	진 행 : 김선경 목사
12:30~13:30	점 심 식 사	
13:30~14:00	찬 양	인 도 : 김상우 전도사
14:00~15:30	특 강 3	제 목 : '성령충만한 여목회자의 자성과 인생' 사 회 : 탁정신 목사 기 도 : 김순자 목사 강 사 : 김병훈 교수
15:30~16:20	폐 회 예 배	사 회 : 합정임 목사 기 도 : 명영란 목사 설 교 : 정부용 목사 한금기도 : 조영란 목사
16:20~16:30	시 상 식	1. 찬송경연대회 2. 5분 설교대회 3. 수련회M.V.P. 4. 지부별(지방회) 최다 출석상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한국신학회 이사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회장



진등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담임

대회본부장



김병목 목사
총무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여교역자국 교문



정부용 목사
전직 부총회장
대림멜로교회 담임

대회준비위원장



탁정신 목사
여교역자국 국장
온선교회 담임

대회총진행



김선경 목사
여교역자국 차장
천안세계로교회 담임

외부강사



김하나 선교사
중동아시아국가 선교사
부산외대 교수

외부강사



김병훈 교수
호서대학교 목회상담학
목회상담학 박사

대 회 준 비 위 원

- 행사부장 김바울 목사 (경기지방회, 순복음진리교회)
- 예배부장 김효신 목사 (경기남지방회, 순복음천양교회)
- 친교부장 최영희 목사 (안산시흥지방회, 예준순복음교회)
- 경조부장 김순자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회복교회)
- 홍보부장 명영란 목사 (경기북지방회, 향기로운교회)
- 정보통신부장 함정임 목사 (경기북지방회, 새소망순복음교회)
- 복지부장 이경자 목사 (충남지방회, 순복음경동교회)
- 봉사부장 한순남 목사 (부산지방회, 순복음반송교회)
- 기획부장 조영란 목사 (일산지방회, 일신멜로교회)
- 선교부장 조은주 목사 (광주지방회, 순복음검충은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 각 지방회

열정적 찬양, 뜨거운 기도 새벽까지...

청소년 하계연합수련회 '비제이워십캠프'

제주지방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하계 연합수련회 비제이워십 캠프(Bible&Jesus Worship Camp)가 지난 13일(목)~15일(토)까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리에 있는 성안수양관에서 열렸다.

약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썸머더위도 무색케 할 만큼 뜨거운 열기 가운데 복음적인 설교와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동과 성장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 받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장가처럼 시간에는 각 팀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율동과 찬양을 마음껏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비제이워십캠프는 청소년 지비량수련회 섬김을 위한 초교파 자원봉사단체로 매년 하계와 동계에 충북 청원과 제주에서 청소년캠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복음적이고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며 전국교의 중소규모의 교회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단내 제주지방회 순복음에수나리교회(담임 김건수 목사)를 비롯 몇 교회에서 함께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들을 위한 전국전지를 통해 세계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 제주에서 김건수 목사 -



유소년 연합수련회... '그리스도인의 지체됨' 주제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정수 목사)는 지난 6일(목)~8일(토)까지 2박 3일 동안 은성교회 오창선교센타에서 지방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만 목사·원내사진) 주관으로 유소년연합수련회를 가졌다.

금년에 제5회째를 맞이한 지방회 연합수련회는 매년 그 수가 더해져서 올리는 첫회 때보다 배가 많은 162명(12교회)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올해는 "그리스도인의 지체됨(엡1:23)"이라는 주제 아래 작년에 이어 지방회 교육부장 신현찬 목사를 주강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교회의 지체된 모습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하는 삶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수련회 과정에서 각 교회 유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매 시간 찬양을 인도하였고, 보컬대회를 개최하여 개 교회별 유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을 이루는 결과도 가져왔다. 수련회는 낮 시간에는 특강과 수영 및 자유시간을 많이 할애하여 유소년들의 활동의 즐거움을 주었고, 저녁식사 후 밤에는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집중하였는데 교회 장년 성도들도 참여하여 은혜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방회는 그 동안 이 일을 위해 개인별 회비를 제외한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회에서 지원하고 개 교회별 찬조금을 합하여 매년 풍성하게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오창선교센타에서



교회성장 정보 교환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심현일 목사)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지난 3일~5일(2박 3일) 성서순복음교회(담임 김진홍 목사)의 지원으로 초교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장석 교회성장연구소가 속리산 유스타운(리조트)에서 개최한 '2015년도 교회성장컨설팅 여름성령대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여름성령대축제를 통해 참석자들은 교회성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강의를 듣고 토론했으며, 시간마다 개최된 기도대성회에 참여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명을 더욱 돈독히 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인천지방회는 앞으로 이들 지방회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지방회 신하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맡겨진 직분대로 끝까지 충성하라”

고흥송곡교회 제직임명 감사예배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김영식 목사)·고흥송곡교회(담임 정찬식 목사)는 지난 9일(주일) 오후 3시 송곡교회 대성전에서 제직임명(형예)장로, 안수집사, 명예권사, 권사, 서리집사)

감사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을 위해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송곡교회 담임 정찬식 목사(전라지방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최남성 목사의 기도, 서기 임종호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최형택 목

사의 설교, 회계 서은자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행 6:1-7의 말씀을 본문으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종을 도와서 직분자로서 끝까지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예배는 송형복 명예장로, 송하일 안수집사, 이정민, 이점순 명예권사, 박순금, 신정숙, 공선영 권사, 류영임, 신준식 서리집사들과 교인들에게 서약을 받고 안수위원들의 안수, 축의, 악수례, 공포에 이어 임직자들에게 임직패를 수여했으며 이어서 광주신학교 이사장 주덕영 목사의 권면, 광주지방회장 김영민 목사, 광주신학교 학장 김임복 목사, 전라지방회장 김영식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송형복 장로의 인사, 지방회 증경회장 김갑신 목사의 축도로 제직임명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바른 신학과 신앙의 모범이 될 것 다짐

8월 월례회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차흥식 목사)는 지난 6일(목) 서산에 있는 장지교회(담임 오수경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지방회 총무 김영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재부 김현덕 목사의 기도, 그리고 교단 총회장 진동용 목사의 설교와 지방회 차흥식 목사의 헌금기도와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동용 목사는 마 25:21 말씀을 본문으로 '적한 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적한 중은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목회를 하는 중이 되어야하며,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총회장 진동용 목사 취임예배 광경(충서지방회)

따라 오직 성령의 목회자가 되어야하고 세 번째는 인격을 갖춘 목회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진 목사는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WCC같은 이단의 길을 따라가고 인격적이지 못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도둑질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충서지방회 목회자들은 말

씀과 성령 안에서 바로 서서 인격적인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장지교회에서 제공한 풍성한 오찬을 나눈 후 태안에 있는 신진도에 가서 배를 타고 유람을 한 후 교단총회장 진동용 목사로부터 푸짐한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광복 70년, 애국심 기르는 ‘유관순 학교’



광복 70주년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종) 유관순연구소는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지난 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유관순생가, 유관순 열사 기념관 등지에서 천안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 약 35명을 대상으로 ‘유관순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유관순학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더욱 알차게 준비됐다. 1일차 오전에는 유관순 열사 전문가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류영하 소장의 ‘독립운동 역사, 유관순 열사 생애 이해’ 특강과 함께 유관순과 독립운동에 관한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유관순 생가,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유관순 열사의 삶을 되돌아보고, 31운동

후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이었던 석오 이동녕 기념관에도 둘러 그 값진 애국정신을 기리기도 했다.

유관순연구소 류영하 소장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어린 학생들이 진정한 유관순 정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 biệt히 생각이 비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했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이 시대 청소년들이 본받았으면 한다”고 행사에 담은 바람을 전했다.

한편, 백석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유관순학교는 올해로 12번째 진행되고 있으며,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백석문화대학교,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이 후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2차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심사에서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인증 받기도 했다.

DMZ 국민보은메달 추가 제작

정전65주년이 되는 2018년까지 보급운동 전개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지난 2013년 한국전 정전6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진행했던 ‘참전국을 찾아가는 보은행사’를 위해, DMZ녹색 철조망과 6.25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탄피를 녹여 제작한 ‘DMZ국민보은메달’이, 미국정부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공식 지장메달로 확정되고,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등 관심이 집중된 이후, 계속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메달을 수여 받고 있다는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의 간곡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메달을 추가 제작하여, 오는 2018년 정전65주년 기념일까지 참전국을 중심으로 DMZ국민보은메달 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DMZ 국민보은메달은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롯한 한국전에 참전한 21개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DMZ 중부전선(6사단) 녹색 폐 철조망과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현장에서 수집된 남은 탄피 등을 녹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제작되어, 지난 2013년 7월 27일 미국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을 모시고 진행했던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의 공식메달로 지정되어, 참전용사들에게 수여되었고, 미국연방정부 우정국이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이 메달 뒷면에는 “존경과 감사” 6.25전쟁에 참전하신 귀하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

의 평화한국이 건설되었기에 귀하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DMZ 철조망과 6.25당시 탄피를 녹여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보은메달을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귀하께 정중히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영문으로 새겨져 있다.

미국 애즈베리신학교 총장 한국 방문

광림교회 초청으로 방문, 교회 개척 모델 미국과 세계 교회에 소개할 것

웨슬리 계통 신학교 중 미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애즈베리신학교의 티모시 테넌트 총장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테넌트 총장의 한국 방문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대에 기독교 세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교회개척이다. 그는 수년 간 인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非)서구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는 총장 취임 이후 2013년 건축한 기숙사 건물을 김선도 감독의 이름을 따서 선도 김(Sundo Kim Hall)이라

명명했다. 비서구 인문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기독교의 미래를 서구권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의 선교적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한국 방문으로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한다. 광림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테넌트 총장은 광림수도원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광림비전랜드, 감리교본부, CTS 등을 돌아보며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 전 세계적 선교에 대한 헌신에 대해 놀랐다고 밝혔다.

테넌트 총장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의 신학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히 한국의 세계적 선교가 더욱 깊이 연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서공회, 탄자니아에 성경 기증

도림교회에서 스와힐리어 성경 13,600부 기증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50분,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는 애장(통합) 도림교회의 정명철 목사와 당회원들, 대한성서공회(권의현 사장) 모금사업부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13,6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인구는 4,9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인구 중 30%가 기독교이며, 이슬람 35%, 토속종교가 35%에 달한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20개의 소수민족 언어가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현재 140만 명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2013년 기준). 탄자니아의 에이즈 인식률은 95%에 달하지만, 탄자니아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탄자니아성서공회에서는 성경 자료를 바탕으로 에이즈 치유 프로그램인 ‘선한 사미리아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에이즈 예방 및 에이즈에 관한 편견 개선과, 에이즈 환자들의 영적 회복을 돕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1만여 명이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고, 에이즈 환자들뿐만 아니라 훈련생과 교회 및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받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성서공회는 학교에서 사용할 성경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탄자니아 인구의 44%가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미약이나 포르노 매춘 산업에 쉽게 노출되어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가정 경제 수준이 낮아 성경 한 권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이 많다. 탄자니아성서공회는 교회, 지역 기독교 청소년 단체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이 매우 협조적으로 응하여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기증되는 스와힐리어 성경 13,600부는 지난 8월 3일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출발했으며, 9월 10일 탄자니아의 디레살레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다. 탄자니아성서공회에서는 이 성경들을 인수하여, 탄자니아에서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송실대-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업무협약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바른 활용 위해

송실대학교(총장 한한수)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을 증진하고 대학 내 올바른 저작권 인식을 세우고자 지난 3일(월) 송실대학교 배여드홀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교류, 컨텐츠의 공동개발,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등 상호교류 및 협력, 업무 및 인적 교류의 확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한수 총장은 “송실대학은 1897년 평양에 세워진 이래로 한국최초의 신학협력 기관인 ‘기계장(機械倉)’을 설립하여 알과 삶을 일치시키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 융합교육을 펼쳐왔다”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매우 밀접한 저작권,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통일시대 창의적 리더를 육성하고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덕철 원장은 “융합적 인재의 육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시대에 대학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의 확대는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력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주·야간)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오순절 신학의 정립과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할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본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교육목표에 따라 교단의 일꾼들을 양육한다.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육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④ 선교현장의 실천적 자로개발과 제공

● 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신·편입생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입생 (신학과)	4년 8학기 12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는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는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을 원할 경우 해당 학년별로 편입가능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 성적 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건강진단서(HIV 포함)
- ⑥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⑦ 신앙고백서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본 신학교 행정실 및 신학교 홈페이지
- ③ 원서접수: 본 신학교 행정실로 문의
- ④ 필기시험 및 면접: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⑥ 합격자 등록기간: 개별통보
- ⑦ 전형료: 30,000원
- ⑧ 등록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본교 행정실 방문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장기기증 서약으로 희망과 생명을!”

전국 6개 교회에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는 지난 7월 26일 주일, 전국 6곳 교회에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가 드려졌다고 밝혔다. 평소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 전달 및 급식 지원 등의 봉사활동과 다양한 선교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천안장로교회는 특별히 올해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렸다.

천안장로교회의 김철수 담임목사는 “교회설립 6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660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으며, 이날 말씀을 듣고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깨달은 40대 여성 성도가 생면부지 타인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살아서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큰 감동을 나눴다.

같은 날,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남정교회(담임목사 신두범)에서도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신목사는 “장기기증 서약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장기기증 서약을 독려했다.



이날 천안장로교회와 남정교회를 비롯한 6개 교회에서 장기기증서약예배를 드렸고, 하루 동안 무려 697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을 약속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박진탁 이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장기기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장기기증을 약속하며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전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국내 장기기증 운동이 더욱 확산되리라 기대해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목회자 부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수도권 & 충청지역 목회자부부를 위한 부부학교

가정의 해체는 더 이상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당면 과제이다. 이제는 교회가 가정의 해체를 막을 뿐 아니라 해결을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사)지구촌기정훈련원이 18년간 변함없이



진행해 온 ‘부부학교’가 오는 9월에는 ‘제1기 목회자부부’를 위한 부부학교 과정을 시작한다. 목회자 및 선교사 부부라면 모두 참여 가능한 이번 프로그램은 2015년 9월~2016년 2월까지 6개월간 격주로 12회 모임을 갖게 되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목회자 부부학교는 먼저 결혼한 부부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가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하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훈련(Training) 프로그램이다. 또한 행복한 부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치유와 회복이 포함된 철저한 소그룹 워크샵(small group work-shop) 프로그램이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

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효순 사모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전하려고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했는데 자꾸만 나태해지려고 하는 저의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좀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담임목사님과 월-금 매일 교회 앞에서 부침개 전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해 보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전도가 안되는 시대에가 하며 제 자신을 위로하며 부흥이 지지부진하던 때에 박영수 목사님의 가족세트 전도법을 목사님에게 듣고 다 비슷하겠지 하며 반대하다 억지로 떠밀려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세트전도 116기에 등록하고 가족세트 선교센터 연중무휴 전도전문 특수훈련을 받기 위해 목사님을 따라서 가족세트 선교센터(평내순복음교회)에 따라 갔습니다. 그곳에서 박영수학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현장실습을 따라 나가 박영수 목사님의 가족세트 전도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산 속에서 길에서 만난 만지 않는 영혼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시키면 영접기도를 따라하였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모두 줄줄 알려주는 탁월한 전도법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덕방, 슈퍼마켓 분방구, 제과점, 화장품가게, 사무실, 사업장, 펜대호평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전도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역시 전지창조를 하셨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빌2:10) 압도한 세트전도는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 났습니다. 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청년이 길에서 어머니와 함께 족자에서 전도되어 교회로 와서 등록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영수 목사님께서 한 영혼에게 영접기도 시키는 중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주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전도하고 싶은 열정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늘 마음이 불일듯하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목사님과 돌이 가족세트전도법으로 전도합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방법으로 전도하면 우리도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나가기만 하면 만지 않는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영접기도를 시키면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들이 높아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를 제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세트전도법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다기를 것을 믿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의 세트전도로 이끌어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꼭 전도 전문훈련을 잘 받아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일조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38년 전도훈련 노하우를 전수 시켜주시 박영수 학장님의 사역 목회자 6만명, 여교역자 3만명, 평신도지도자 10만명을 능력전도자로 발굴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사모 현효순 드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료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는 사모되라”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지난 7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서울 예정교회(담임 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됐다.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와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이번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는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페르스 사태로 한 달 정도 연기되었다가 실시돼 사모들의 더욱 많은 기대와 사모함으로 시작됐다.

이번 제21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강사들이 힘들고 어려웠거나 즐겁고 기뻐했던 목회의 다양한 경험과 간증을 전하는 실용적인 강의를 진행했고 목회자녀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증과 강의 들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모처럼 어렵고 힘든 자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목회자의 사모처럼 더 영광스러운 직분 또한 없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영광스러운 직분 또한 사모인 것이다. 목회자사모는 사람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목회자사모는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사모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를 주최한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설동욱 목사(서울 예정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페르스로 연기했던 사모세미나

일정을 다시 확정하여 진행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는 사모님들을 보면서 이번 세미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설목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시면서 마음껏 웃으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 눈물과 그 웃음이 힘든 목회의 길에 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모님의 목회를 돕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분당서울대병원, “난치병을 이겨내는 ‘같이’의 힘”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국내 최초 콜라보 후원상품 출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은 1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원장 이철하)과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MOU’를 체결했다.

MOU 주요 내용은 ▲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월드비전의 모금 ▲ 치료 사업, 치료 현황보고에 대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협력 ▲ 모금에 참여한 후원자를 위한 투명한 후원보고 협력 등이다.

월드비전이 후원금으로 치료 비용을 모금하면, 분



당서울대학교병원이 난치성 질환 소아 환자의 수술 및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후원금은 최근 법무부와 월드비전이 출범한 ‘공익신탁’을 통해 모금될 예정으로 뜻있는 자선가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모금에 참

여한 후원자는 수혜 어린이의 치료 경과와 치료비용 등이 담긴 정기적인 후원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 협약이 혁신적인 이유는 ▲ 한국전쟁 후 66년간 소아동을 지원해온 국내 최대 NGO의 사업관리 ▲ 국내 최고수준 국립병원의 치료전담 ▲ 금융기관의 후원금 운용 ▲이 모든 과정을 법무부가 보장하는 국내 최초 콜라보레이션 공익신탁 기부방식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기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우려가 있던 후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성회 부흥사회

새 가족 모집 및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안·내



회장
신재영 목사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적혼란의 시대에 뜨거운 사명감으로 “예수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을 힘 있게 선포하며 이 땅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신앙회복 및 우리교단의 부흥, 더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흥사회 임원으로 활동하실 분과 신임회원을 모집합니다.

부흥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교대한하나님성회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 연수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교대한하나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과 계획을 믿고 기도로 준비된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도와 교역자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온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역사하신은 계속 이어져나갑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성도들의 신앙회복에 도움을 주어 함께 성령행전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준비한 자비량 부흥성회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와 목회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어 감동과 열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비량 부흥성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미만의 도시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자비량 부흥성회 신청을 기다립니다.

문의 : 회 장 신재영 목사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010-3698-5764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 은혜 가운데 마쳐

‘내 이름 아시죠’ (사 49:15) 주제, 2박 3일간 평창에서 총회장 진동용 목사, 신재영 목사 등 청소년들에게 비전 심어



총회장 진동용 목사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



대림번영교회 담임 정부용 목사



교단 교육국 주관 2015 중·고등부 비전캠프가 지난 7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마지리 대림번영교회(담임 정부용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열려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은혜충만 성령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지방회 신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운데 2박 3일간 계속된 이번 캠프에는 교단 총회장 진동용 목사를 비롯 교단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 이동진 버리스타, KBS개그맨 이상태 안수집사, 조선남 목사, 변원식 목사, 임형순 목사, 오세준 목사, 주강욱 목사, 소울 싱어즈와 대림번영교회 경배와 찬양팀 등의 성령 충만하고 전문적인 강사진들이 참여 레크리에이션, 긴증 등 다양한 순서와 함께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매가 유난히 극심했던 울려퍼지는 무더위를 무색하게 했다.

‘내 이름 아시죠’ (사 49:15) 라는 주제 아래 전국 각 지방회 소속 교회별로 참여한 청소년 3백여명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느새 선배배 친구들과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캠프에는 성령충만의 시간, 찬양콘서트, 천로역정, 조별 장기지명, 아이들의 간증시간, 레크리에이션, 캠페이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해가진다는 것을 매우 아쉬워하기도 했다.



오직 외길 40년 성경연구의 결정판 / 입소문만으로 들던 그 성경! 성경 읽는 눈이 확- 열립니다!!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에 감탄하실 것입니다.

목회자 초청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III **무료** 공개 세미나

차원이 다른 성경! 평생에 꼭 소유하고 싶다는 성경 出刊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프리즘문맥 키아즘성경III'을 탐내는가?

1. 이 키아즘 성경을 보고 읽는 법을 배우면, 성경이 뽕 뚫립니다.
2. 성경의 핵심(하나님의 공화)을 바로 알게 하도록 시각화에 오직 외길 40년을 바쳐서 편집된 성경으로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시각화로 문맥의 의도가 한눈에 잡힘.
 - 수십 번 성경 통독으로 해결 못한 핵심 파악 문제가 쉽게 해결됨.
 - 12색 '대화 보기'로 인쇄되어 내용파악이 쉬워짐.(구속사적 사건과 인물이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내용과 약이 가일층 쉬워짐)
3. 설교자의 고민, 설교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4.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칭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별함으로써 핵심을 드러내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행운권 추첨:** 접수순 100번 가운데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분에 한하여 추첨. 3명에게 본 성경(권당 120만원 상당)을 무료증정



강사 강 유식 목사

- 합동신학대학원 졸업
- 말씀선승교회 대표
- 프리즘성경연구원 대표
- 프리즘성경I 편저
- 프리즘문맥성경II 편저
- 프리즘문맥키아즘 성경III 편저



YouTube에서 C채널 세미나 - 강유식 목사의 프리즘 성경 1회 보기 - C채널 세미나 - 강유식 목사의 프리즘 성경 1회: <https://youtu.be/8ew8Z1cSg2Y>

장호순 목사
순복음금강교회 담임

- ① 공주지부장 순복음금강교회 장호순 목사(010-5117-0291)
매월 30일(월)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최창업 목사(010-6487-9934)
- ② 전주지부장 살롬교회 최종근 목사(010-9930-3291)
매주 월요일(월)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이은경 전도사(010-7666-9113)
- ③ 대전지부장 옥합교회 유다윗 목사(010-2308-1042)
매주 수요일(수)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박경호 목사(010-6482-4110)
- ④ 대구지부장 경산비로교회 김용원 목사(010-3828-9864)
매주 목요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총무 전철근 목사(010-8259-8298)

순복음금강교회
충남 공주시 소학동길 151-3

*순복음금강교회에서는 매월 말일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말일이 주말일 경우 월요일로 변경됩니다.



목양의새물

이환권 목사 // 일본 선교사

누룩을 주의하라



“어찌 내 말한 것이 딱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딱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마 16:11-12)

예수께서 행하신 5병2어(마 14:15-21)와 7병 2-3어(15:32-39)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명백한 표적이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했다(16: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됨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었다. 옛 다윗 왕국의 변역을 다시 이루어줄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입각한 인식이라 아니라 현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무관했다(사 53: 마 16:4, 21). 신앙심에서 비롯되었으나 세상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그러리진 갈망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신 18:15; 행 7:37)로 인식하면서도 그 말씀은 듣지 않는 모순된 결과를 불러왔다. 5병2어의 표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따르라고 했던 그 선지자로 여기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요 6:14-15).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바른 가르침과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려서움을 인정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교훈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

인 메시아가 오셔서 부강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육신적인 교훈을 예수님은 누룩에 비유하셨다. 그 누룩은 겉으로는 하늘과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세속의 정신으로 물든 거짓된 교훈인 것이었다. 그 누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 신앙을 세속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여 육신적인 것이 되게 하는 전염성이 강한 것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룩, 즉 거짓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16:17). 따라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지식이 있음을 자처하면서도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겸손히 따르지도 아니한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점이다. 분명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당시의 시대적인 풍조에 물들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은 후의 부활에 대해 어리석은 만류를 했었다(16:22; cf. 16:4; 사 53).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을 대항하셨던 그 말을 베드로에게 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cf. 마 4:10; 16:23)

은혜로운 경험과 고백은 때때로 자만과 과신을 불러오기도 한다. 풍성하고 다양한 신앙적 경험이 지적 성숙을 자동적으로 완성시켜주지도 않는다. 주님의 교훈에 대한 겸손한 충성이 불완전한 우리

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16:24)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갈 5:9). 경건을 방자해서 자신이 다 된 줄로 여기며 스스로 중심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해를 끼치는 누룩이 될 수 있다.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이전에 주님의 뜻을 살피고 공교회와 권위를 존중하며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조언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종식되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되었다. 89일 동안의 소동이 끝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전염성 질환은 처음 발병한 환자들과 그 발생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인체의 건강과 사회적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비와 사후 처리가 중요하듯이 주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짓되고 변질된 정보와 교훈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현실적인 욕구와 이해에 기반하여 신앙의 본질과 공동체의 화평을 위협하는 누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4-26)

기적 시대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개관하고, 선교사역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진단과 성찰을 한 이후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제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북한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북한을 향한 무관심도 극복하고, 좌우 양극단으로 치우친 관점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관성 있는 북한선교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북한선교연합컨퍼런스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주제로 다룬 ‘북한선교 연합컨퍼런스’가 지난 14일 서울 도렴동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열렸다.

미래목회포럼과 북한 및 통일 선교 실무 지역자들로 구성된 (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선교 사역현장을 진단하고, 복음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미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한 이윤재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는 “광복70주년이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의 애너지를 집결하고 ‘국민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남북한의 분단70년을 극복하지 않고서 광복의 완성은 불가능하므로, 남북이 뜻을 함께 하여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선교 사역의 진단과 성찰’에 대해 발제한 오성훈 회장(북한지역목회자협의회)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불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진정한 회개”라고 전제한 후 “북한선교를 ‘복음 회복운동’으로 인식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70년간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를 연대

사 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수련회...

2학기 본 교단 전국신학생 개강연합수련회가 8월24일~25일 열린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 국화 향기를 맡으며 또 한 학기를 시작한다. 신학수업은 권능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모든 지식과 체험신앙을 연마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이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권능”을 받는 것이다. 바로 ‘두나미스’(δυναμις=power)를 받는 것이다. “권능”을 받으면 온 세상이 나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권능이 없이는 복음전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명심해야 할 일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을 모르는 신학도는 없다. 그런데 많은 신학도들이 지식으로만 충만해 보려고 안달을 하면서도 정작 “권능”을 받는 일에는 소홀한 것이 요즘 신학도들의 일반적인 풍조다.

신학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은 다음 교회 개척이나 벽지 선교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된 희생과 봉사는 업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다.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과거 6,70년대만 해도 신학수업은 고된 기도의 수련 시간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말 가운데는 적어도 산에 올라가 “소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신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로 씨름하는 신학도가 많지 않다. 신학수업 때부터 “부름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각오가 결여된 까닭이다. 한 마디로 사명자의 부재인 것이다.

기드온 사사는 수만 명 군사지원자를 중3백만 골라 내고 겹쟁이들을 가려 돌려보냈다. 용기 없는 자는 처음부터 불합격이다. 신학도가 적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 불타는 복음의 사자가 요망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다. 무디(Moody) 선생은 일찍이 능력을 받기 위해 고심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불타는 복음의 사자가 되었다.

전국신학생 개강연합수련회는 이 ‘성령의 불’을 받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아니 한 후 신학을 마칠 때 까지 반드시 무디 선생과 같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체험을 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하고 찬송할 자격을 얻게 된다.

지금 세상은 말세를 맞아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골짜기에 그득히 해골처럼 가득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받기 보다는 취임에만 골몰하는 신학도가 된단 말인가.

동성에·동성혼 합법화 입법시도에 경각심을!

정기국회가 9월초에 개최된다. 지난 2003, 2010년 등에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에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그때마다 주로 우리 기독교계의 강력한 저지 활동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마치 무슨 급과옥조나 얻은 듯이 축제를 벌이고 광란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도 덩달아 맹위를 떨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산된 동진당 의원 6명을 포함 입수

경, 김광진, 장하나, 조정식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10인이 2012년 11.6자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아직도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진당 의원들이 당 해산 등으로 전원 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그들과 함께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아직 업존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기국회가, 동성애를 전면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비판하는 사람을 기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안”을 결단코 입법할 수 없도록 잠시도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5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 교단 소속 사역자들은 목사안수를 위하여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다.

● 원훈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년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부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반명함판 사진 6매(3개월 이내 촬영)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여부

3.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4.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 ③ 원서접수 :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④ 면접 : 개별통보
- ⑤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전형료 및 입금계좌번호

*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6.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 Master of Ministry, 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고 교단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한다.
- ③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④ 기타 상세한 문외는 본 대학원 행정사무실로 문의 바람.
- ⑤ 접수방법 : 지원자는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우편으로 접수. 전형료는 계좌에 입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직통 (02)2677-0692~3, FAX (02)711-995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홈페이지 : www.agpgs.or.kr, E-Mail : agpgs@hanmail.net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8

광복70주년기념 8·15 국가기도회 설교 전문

사랑의 원자탄

본문 : 요 8:32~36

우리나라는 일제(日帝) 치하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권과 국토가 유린되고 착취당하였습니다.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온갖 압박과 수모를 견디어야 했습니다. 독립투사 선열들이 생명을 바쳐 가며 애썼지만 국권을 회복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려면 일본제국을 대항하여 물리칠 힘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기치 못한 해방이 갑자기 성큼 다가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미국에 의하여 얻게 된 해방이며 자유입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힘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1933년 9월 12일 유대계 항가리인 망명자이며 뛰어난 물리학자인 〈실라드〉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런던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동안 원자폭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 발상은 〈실라드〉를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포악하고 잔인한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며, 나치독일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설득하여 미국이 독일보다 앞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도록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비밀리에 〈맨해튼〉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봄 독일이 패전했습니다. 그러자 〈실라드〉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지 않도록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뛰어 도망치려 할 사람들을 만나서 원자폭탄 제조를 막으려고 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원자폭탄 연구소의 우두머리는 40세의 핵과학자 〈로버트 오펜 하임어〉였습니다. 그는 〈오펜

하임어〉를 설득하려 했으나 역시 하사였습니다. 오펜하임어는 원자폭탄의 위력이 보통 폭탄보다는 훨씬 강력할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오펜하임어〉의 지휘 아래 제조된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1945년 7월 16일 오전 9시 20분 미국 〈뉴멕시코 주〉의 〈호르나다〉 사막 〈로스앨러모스〉에서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원자폭탄의 가공할 위력에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인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5분 B29 폭격기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핵폭탄의 폭발은 백만 분의 1초 내에 일어나고, 그 지속시간은 이백 만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섬섬 6천만 도의 태양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이 눈을 멀게 하는 섬광과 함께 도시를 삼켰습니다. 극히 짧은 순간에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엄청난 고온이 발생하여 주위의 공기를 가열시키고 가열된 공기는 급격히 팽창해서 폭풍이 되어 무서운 파괴 효과를 냈습니다.

눈 깜박할 순간에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십수만 명이 즉사 또는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야욕도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의 가공할 파괴력을 알게 된 일본 군부 지도자들은 일본 열도가 계속 원자폭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첫 원자 폭탄이 투하 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우리나라는 기나긴 일본의 압제에서 놓여나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 이북은 일제치하에서는 자유를 얻었으나 공산주의 독재치하에 놓이게 되어 거주와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감시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독재통제사회입니다.

우리의 염원은 속히 평화통일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북한 지도체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적화통일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협박한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도발과 테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서 착한 마음만으로는 강한 힘을 가진 자의 억압에서 자유 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일제 치하에서 우리민족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한 중국과 일본이 내심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 복잡 미묘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제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70년 전 우리나라의 해방은 기적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통일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신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때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고, 이를 수행하도록 성령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위해 속히 평화통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어 복음화 되기를 위해 반세기를 훨씬 더 지나도록 애써 기도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중심에서 우리나라 애국애족의 열정을 피력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과 하는 말이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것을 토로하였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 받게 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뻐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32:31,32)

모세나 바울의 이런 말은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족에 대한 연민과 동족의 구원을 위한 열정의 간절함을 더할 수 없이 진솔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사회에서 잘못을 범하여 벌을 받게 될 형편에 처하면, 부모는 자기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나 민족의 구별이 없어도, 신앙인에게는 조국이 있고 동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애족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에 자국 받고 격려되어 동포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국애족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함께합니다. 인류애가 배제된 애국은 추악한 애국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러합니다.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민족을 멸절시키려 하는 것은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나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자기 나라의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추악한 범죄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광복70주년 기념 8·15국가기도회 대회장

행위입니다.

원자탄이 일본에 투하됨으로 우리나라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와 독재로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북한에 사랑의 원자탄을 퍼부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여 복음이 북한 전역을 뒤덮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퍼부어지면 죄와사탄에게 얽매었던 사람들이 참된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진리이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8:32,36) 하였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여러분, 북한 동포를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이 〈사랑의 원자탄〉인 복음의 능력에 의해 멸하여지고, 북한 동포가 온전한 광복을 얻게 되도록 모세나바울의 심정으로 애써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직도죄악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는 우리 민족과 나아가서 온세계 만민이 참된 자유를 얻도록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하나님께 문을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23) 이 말씀이 북한 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신학생 개강연합수련회

주제 :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 (요 10:11)

강사



조용묵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진등용 목사
총회장
새소망교회



김인규 목사
중경총회장
은혜와평강교회



임종달 목사
중경총회장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조원익 목사
부총회장
순복음주계교회



이광신 목사
전 신학발전위원장
청주아가페교회



김양인 목사
광주지방회장
목양제일교회



이규호 목사
예해성강원신학교 학장
순복음동산교회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 8월 25일(화) 1박 2일

장소 은혜와진리수양관 (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주관 신학발전위원회(위원장 차갑선 목사)
신학교리국(국장 황용연 목사)

대상 총회 산하 전국 신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원

회비 1인당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51-0263-4761-73 이경진)

문의 및 연락처

신학교리국 국장 황용연 목사
(010-9321-0675 : immeosm@hanmail.net)
신학교리국 차장 이경진 목사
(010-6355-5013 : love-kjsh@hanmail.net)

광고 사항

1. 참석인원(교수님, 신학생)을 2015. 8. 10(월)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명찰 및 숙식준비)
2. 접수는 2015. 8. 24(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3. 신학교별 장기지랑 시간에는 학교소개와 장기지랑을 함께 합니다.



차갑선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시흥순복음교회



황용연 목사
신학교리국 국장
은혜와평강교회



이경진 목사
신학교리국 차장
다시말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진등용 신학발전위원장 목사 차갑선
총무 목사 김병묵 신학교리국장 목사 황용연